

#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김 상래(삼육대) 한국인 구약학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에 대한 분석(1931년-2010년) ..... 179

이 논문은 지난 80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인들의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수집된 12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학위 이수의 지역적 분포, 연대별 분포, 그리고 분야별 분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 구약학계의 세계화된 역량과 세분화 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Kim, Sang Lae** An Analytical Study of Academic Trends in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OT Studies by Korean Scholars (1931-2010) ..... 179

#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1931년-2010년)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sup>1)</sup>

김 상래 | 삼육대

## 1. 들어가는 말

박사학위 논문은 한 사람의 학자가 특정 분야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를 종합하고 비평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 가장 전문적인 학술 작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는 저자의 학문적 관심사는 물론이요 그의 학문적 방법론과 경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그가 ‘무엇을[주제]’ ‘어떻게[방법론]’ 연구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학자들의 학문적 봉사가 학위논문에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계속되는 학문 작업이 그 학위 논문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군의 학위 논문에 대한 분석은 그 집단의 학문적 경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2010년은 한국구약학회가 설립 50주년 즉 회년을 맞이한 해이었다.

---

1) 이 논문은 2010년 5월 28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구약학회 회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An Analytical Study of Academic Trends in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OT Studies by Korean Scholars—Based on Recent 30 Years, (1980-2010)”란 제목의 논문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학회에는 현재 300여 명<sup>2)</sup>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120여 명<sup>3)</sup>의 회원들은 전 세계 60여개의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은 전·현직 대학 교수로서 한국의 50여개의 대학<sup>4)</sup>에서 구약을 가르쳐 왔고 또 가르치고 있다. 매우 다양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는가? 그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법론은 무엇이며 해석학적 원칙은 어떤 것인가? 과연 한국 구약학계에도 학과가 존재하는가? 회년을 맞은 한국 구약학계도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질 만큼 성숙하였다고 본다.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그동안 한국 구약학 연구 및 교육 역사에 나타난 ‘최초’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시도하려는 연구에 흥미를 더할 것이다. 문 회석에 의하면 한국에서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구약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916년에 나온 양주삼(梁柱三)의 글 “구신약전서총론(舊新約全書總論)”<sup>5)</sup>이다. 이 논문은 당시 초창기 한국기독교 학술지였던 「신학세계」에 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sup>6)</sup> 그 제목부터 ‘신구약’이 아니라 ‘구신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구약학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논문은 그 때 이미 오경의 저작권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국인 ‘구약학 교수’는 누구인가?<sup>7)</sup> 다시 문 회석에

2) 2010년 5월 28일 자료 279명의 회원과 2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3) 2010년 5월 28일 자료 전임, 겸임, 강사 등 대학에서 강의하는 회원들이 117명이다.

4) 한국구약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구약학 교수들이 1명 이상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지면상 통상의 약어로 표기한다: 감신대, 강남대, 개혁신대, 건국대, 계명대, 관동대, 광신대, 국제신대, 그리스도신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신대, 동아시아신학대학원,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복음신대학원대, 장신대, 부산 장신대, 삼육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신대, 성결대, 성공회대, 세종대, 순복음신학대학원대, 숭실대, 아신대, 안양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연세대, 영남신대, 예일신대원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이화여대, 장신대, 총신대, 침신대, 평택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대, 한일장신대, 합동신대학원대, 합신대, 협성대, 호남신대, 호서대, 햇불신학대학원대, 등.

5) 문 회석, “한국교회의 구약성서 해석사,” 「신학사상」 제 20호 (1978년 봄), 141-192쪽.

6) 양 주삼, “구신약전서총론,” 「신학세계」 I.1 (1916), 69-88; I.2(1916), 61-75; I.3(1916), 43-67. 양 주삼은 밴더빌트와 예일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16년 「신학세계」를 창간하였고, 협성신학교를 창설하였다. 미국 메이콘(Macon) 대학교(1931년)와 개럿(Garret) 신학교(1932년)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D.D.)를 받았다.

7) 참고로 한국 신학교 역사에서 최초의 ‘한국인’ 신학 교수는 남궁 혁이다. 그는 1921년 장로교회가 세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25년 평양신학교 전임교수가 된 후, 1927년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조직신학)를 받았다.

의하면 “1922년부터 1929년 사이에 구약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10명<sup>8)</sup>이 있었다. 최초의 한국인 구약학 교수들은 이들 중 두 명이다. 그들이 감리교 설립 협성신학교의 김 인영과 장로교 설립 평양신학교의 이 성휘이다. 김 인영은 1925년-1931년에 협성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경의 진화론”과 “오경의 전설과 비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성휘는 1926년 평양신학교 임시교수로 임명된 후, 1927년 평양신학교에서 성서문학강해를 강의하면서 그 학교 첫 한국인 구약학 교수가 되었다.<sup>9)</sup> 그러나 이들은 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한국인 구약학 교수는 누구일까? 확인된 바로는 1931년 미국 드류(Drew) 신학교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화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변 홍규이다.<sup>10)</sup> 그는 “한국인 감리교인으로서의 첫 신학박사”<sup>11)</sup>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첫 구약학 박사이다. 문 희석은 변 홍규 이후 “감리교에서는 학적인 활동은 1931년 종결을 보았으며 ... 1957년까지 이렇다 할 학자가 등장하지 않았다”<sup>12)</sup>고 하였다. 그가 1957년을 지목한 것은 그 해에 「기독교사상」지가 창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전 해인 1956년에 박대선이 미국 보스턴(Boston) 대학교에서 “이사야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서설(Prolegomena to a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of Isaiah)”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Th.D.)를 받음으로 “이렇다 할 학자”로 등장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sup>13)</sup> 그 같은 해에 장로교단 쪽에서도 구약을 전공하여

8) 문 희석, 엿글, 150쪽. 10명은 박 대선, 팍 안런(A. D. Clark), 부 두일(W. R. Foote), 척 보민, 이 성휘, 왕 길지(Y. Engel), 이 철락, 최 계철, 감리교의 김 인영 등.

9)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34년 인디애나 주의 하노버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0) 유 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6)-변홍규 편,” 「기독교사상」 제 12권 제 6호 (1968), 112-116쪽 참조. 그의 학문적 관심이 ‘거룩[聖]’이었기에 그는 ‘세인트 변’(Saint Byun)이라고도 불렸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참조. 그는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협성신학교[감리교신학대학교 전신]에서 강의하였고, 1939년 최초의 한국인 교장으로 그 학교 6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1) 유 동식, 엿글, 114.

12) 문 희석, “한국교회의 구약성서 해석사,” 157쪽. 문 희석이 1957년을 적시한 것은 그 해에 「기독교사상」지가 창간되었기 때문이다.

13) 1940년(A.B.)과 1942년(B.D.)에 일본의 관서학원(關西學院-Kwansei Gakuin) 대학교에서 영

박사학위를 받는 “이렇다 할 학자”가 등장한다. 그가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의 석사를 거쳐, 피츠버그의 웨스턴 신학 대학원에서 “호세아의 시련(The Trial of Hosea)”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윤국이다. 그가 국내에 덜 알려진 것은 귀국 후 다시 도미하여 거기서 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구약학회 회원’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학자는 누구인가? 그가 바로 1953년 캐나다 빅토리아 임마누엘 대학교와 1954년 토론토 대학교에서 각각 학사(B.D.)와 석사(Th.M.)를 받고, 1961년 7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지시에 나타난 히브리 경건 연구(A Study of Hebrew P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Batah)”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정준이다.<sup>14)</sup> 한국구약학회가 김 정준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1961년 6월에 조직되었으니 이 학회의 태동은 곧 김 정준의 박사학위 수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여러 대학에 진출하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혹은 구약학을 전공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예를 들어, 1984년 뉴욕의 Union Theological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신대학교의 김 이곤의 경험은 각 대학에서 한국인 1호 박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날 그 대학의 총장은 김 이곤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오늘은 한국의 날입니다”라

---

문학과 신학을 전공하여 두 개의 학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총장 역임(1964-1975년). 본인은 그의 박사 학위 원본을 잠시 보관하는 특권을 누렸다. 한국구약학회 회원 기념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위해 박사학위 논문 수집에 분주하던 본인은 5월 초, 그분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주에 그 논문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본인은 5월 28일 논문 발표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박 대선 박사의 학위논문 원본을 보여주는 특권을 누렸다. 발제 후 그 논문을 왕대일 교수에게 넘겨주었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14)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2년 수료, 도쿄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 졸업. 1949년 2월부터 조선신학교(현 한신대)에서 구약학 교수로 교직 시작.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한신대 교수와 학장 (1961.9-1962.5),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와 교목실장(1963.4-1969.2), 연합신학대학원 초대원장(1964.1-1970.4), 한신대 교수(1970.5-1979.2) 역임.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초대회장. 1981년 2월 3일 67세로 별세. 「김정준」(서울: 홍성사, 2009) 참조. 논문의 주요 내용이 “히브리 경건 연구(A Study on the Pietism of Israel)”란 제목으로 「신학연구」 제 17집(1976년 4월), 39-68쪽에 발표.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9)-김정준 편,” 『기독교사상』 통권 제 124호 (1968년 9월), 121-127쪽 참조.

고 선언하였다.<sup>15)</sup> 틀림없이 각 대학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구약학회 회원으로 등록된 교수들이 학위를 받은 대학은 전 세계 60여개 대학에 이른다.

## 2. 한국 구약학의 학문적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

한국인 구약학 학자들의 학위 논문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학문적 동향을 분석해 보기 이전에 우선 그동안 먼저 시도된 한국 구약학계의 학문적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이 연구가 어떤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다르며, 또 어떤 점에서 한국 구약학 연구에 공헌이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77년 황 성숙은 “한국 구약학의 역사—구약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고찰한—”이란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이 논문에서 1930-1976년 사이에 발표된 구약학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 저서, 그리고 역서들을 해설 없이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sup>16)</sup>

1978년 문 희석은 “한국교회의 구약성서 해석사”라는 소논문을 통해 1900-1977년까지의 한국구약학 연구의 동향을 (1) 초창기(1900-1929), (2) 근본주의 성서관의 확립기(1930-1940), (3) 해방 전후와 6.25 동란기(1941-1956), (4) 성서학적 성서관의 확립기(1957-1977)로 나누어 분석하되, 주로 성서비평학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7)</sup> 그는 같은 해에 이 논문에 구약관련 논문, 저서, 역서들을 저자별, 연도별, 분야별로 정리한 “참고 문헌”을 덧붙인 단행본 『한국 교회와 구약성서 해석사: 1900-1977』를 출판하였다.<sup>18)</sup>

1982년 민 영진은 1970-1981년 사이에 한국 구약 학자들에 의해 이루

15) 2010년 4월 12일에 받은 그의 개인 메일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그는 한신대에서 43년간 구약학 교수로 봉직하고 은퇴하였다. 그는 1984년 5월 학위수여식장에서 연세대학교의 노 정선 교수와 최초의 한국인 박사학위 수여자로서 호명되었다. 김 이곤 교수 이전에 강 원용, 문 상희, 박 형규, 등이 UTS in NY에 유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6) 황 성숙, “한국 구약학의 역사 - 구약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고찰한 -,” 『신학연구』 제 18집(1977년 5월), 195-224쪽.

17) 문 희석, “한국교회의 구약성서해석사,” 141-93쪽.

18) 문 희석, 『한국 교회와 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어진 학문적인 저술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이 모든 연구물들을 크게 제I부 ‘구약학 기본 도구’와 제II부 ‘구약성서 권별 연구’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제I부는 구약원전의 보급 및 번역, 성서 히브리어, 사전류,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문헌, 주석류, 성서지도책과 성서지리, 구약성서 개론, 성서비평학, 이스라엘 역사와 고고학, 구약 신학 등으로, 제II부는 오경,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성문서 등으로 세분하였다.<sup>19)</sup>

1999년 김 정우는 “20세기 한국의 구약학 연구사와 역사비평학(1900~1999)”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한국 구약학의 100년 역사를 (1) 발아기(1900-1927), (2) 착근기(1928-1956), (3) 분지기(1957-1972), (4) 개화기(1973-1989), 그리고 (5) 결실기(1990-1999)로 나누었다. 그는 「한국신학자료색인」<sup>20)</sup>에 전산화된 1916-1998년까지 창간된 162종의 신학 정간물에 게재된 구약학 관련 논문 약 80,000건을 취합하여, 그것을 주제와 책별로 분석하였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된 그래프 통계에 의하면 ‘주제별로’ 보아서는 구약신학과 성서해석학이, ‘책별’로 보아서는 창세기 와 출애굽기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sup>21)</sup>

2001년 임 태수는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100년의 한국 구약학 역사를 회고하면서 새 천년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그는 먼저 한국 구약학은 (1)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2) 뚜렷한 신학학파나 신학운동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3) 한국적 신학을 수립하지 못하고 서구신학에 의존하였고, (4) 아시아-아프리카 신학과 교류하지 못했으며, (5) 신학과 목회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고 반성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6) 구약신학은 오늘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실천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끝으로 (7) 그것을 위한 성서해석방법론으로 경전적 해석 방법을

19) 민 영진, “1970년대 구약신학,” 『신학사상』 제 36집 (1982 봄), 5-36쪽. 1980년대의 한국 구약학 연구 동향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도 참조하라. 김 의원, “한국구약신학의 진단,” 『개혁사상』 (1989 가을), 48-71쪽. 유 동식, “1970년대 한국신학,” 『신학사상』 36 (1982 봄), 80-112쪽.

20)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 1999년 발행되었다.

21) 김 정우, “20세기 한국의 구약학 연구사와 역사비평학(1900~1999),” 『목회와 신학』 (1999년 12월), 208-219쪽, (2000년 1월), 186-197쪽.

제안하였다.<sup>22)</sup>

2007년 한 동구는 “한국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연구방법론과 오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구약성서에 대한 주석 혹은 해석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구약학의 학문적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오경 연구를 각 책 별로 정리한다.<sup>23)</sup>

2008년 이 형원은 “한국 구약학의 동향과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구약논단」(1-24권),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그리고 「성경과 신학」에 발표된 300여 편(구약논단 200, 신학논총 52, 성경과 신학 33)의 논문을 그 사용한 방법론과 학문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구약학 연구에서는 통시적 방법론에 따른 사회학적 비평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상대적으로 공시적 접근은 등한시되었다.<sup>24)</sup>

2010년 3월, 박 동현은 “구약학의 흐름과 미래”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한국인 구약 학자들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 서양 학계에서 그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단행본의 총서로 출판된 경우를 수집하여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제출한 구약학 박사 학위 논문의 10%정도가 세계 구약 학계에 출판되어 소개되었다. 그는 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의 우수한 성서학 관련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소논문의 목록도 소개하였다.<sup>25)</sup>

2010년 5월 왕 대일은 한국구약학회 회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그 학회 회장으로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2003년 이미 그가 발표한 “한국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sup>26)</sup>이라는 논문에 이어, 다시 “한국 구약학에

22) 임 태수, 「종교다원시대의 이스라엘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254-255쪽.

23) 한 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 연구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50집 (2007), 5-48쪽.

24) 그의 논문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영문판에 영어로 발표되었다. Lee, Hyung-Won,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7 (2008), 5-24쪽.

25) 박 동현, “구약학의 흐름과 미래,” 김 동건(엮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구약학에서 신학의 조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1-71쪽.

26) 왕 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한국문화연구원(편), 「신학연구 50년」 (서울:

대한 회고와 전망(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먼저 (1) 양 주삼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구약학의 과거에서 배울 교훈, (2) 다른 성서관이 다양한 성서해석의 이슈들을 야기한 사실, (3) 성서 텍스트와 한국의 콘텍스트의 관계의 중요성, (4) 한국교회에 끼친 구속사 신학의 영향, 그리고 (5) 신학을 어떻게 모국어인 한국어로 체현해 내느냐에 대한 신학적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sup>27)</sup>

한국 구약학의 역사와 학문적 동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표된 거의 모든 구약학 관련 자료들이 매우 세밀하게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도되지 않은 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 학자들이 쓴 그들의 구약학 박사 학위 논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결코 단순한 ‘성경공부’(Bible Study) 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학문 영역인 ‘성서학 연구’(Biblical Studies)를 통해 얻은 학문적 결실이다. 그러므로 한국 구약학 연구에서 이 일은 반드시 시도할만한 일이고 또 시도되어야 할 일이다.

현 시점에서 이 작업을 가장 정확히 수행하려면 모든 한국인 학자들의 구약학 박사 학위 논문 전체를 수집하는 일이다. 그 작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역대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자들과 현 회원들 중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가 발행한 「전국신학교육기관자료집」에 나타난 구약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그 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총 129명의 박사학위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 중 90명으로부터 논문 자체를 수집하였고, 나머지는 논문에 관한 기본 정보들 즉 논문 제목, 학교, 연도 등을 수집하였다. 논문에 대한 분석은 지면관계상 ‘방법론’, ‘학문적 기여’ 등에 관한 교차 분석은 보류하고 다만 ‘언제(연도)’, ‘어디서(학교)’, ‘무엇(제목)’을 연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도서출판 해안, 2003), 47-49쪽.

27) 왕 대일,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제 16권 3호 (2010, 9), 12-26쪽.

### 3. 연대 및 지역으로 본 한국 구약학 박사 학위 분포

박사학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학위 논문 제목과 학위를 받은 학교와 연도에 관한 것이다. 1931년부터 2010년까지 구약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수집된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193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으로서 구약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학자들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130명에 육박한다. 이들을 1960년대를 기준하여 이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놀라운 결과가 파악된다. 우선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4명, 1970년대는 6명, 1980년대는 16명, 1990년대는 43명, 2000년대는 60명에 이른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60년대까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명수	4명	6명	16명	43명	60명

이 통계는 1970년대 이후로 매 10년마다 이전 기간의 2-3배수의 구약학자들이 배출되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1950-1970년대의 한국 구약학의 특징에 대해 문 희석은 ‘성서학적 성서관의 확립기(1957-1977)’로, 김 정우는 ‘분지기’(1957-1972)로 보았다. 그러나 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여하튼 김 정우의 말대로 “외국에서 돌아온 젊은 구약학자들의 왕성한 활동”<sup>28)</sup>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 때를 기점으로 구약학 박사 학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이다. 이런 이유로 임 태수는 20세기 말 20년 동안의 한국 구약학계의 변화에 대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국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구약학자의 수가 급격히

28) 김 정우, *윗글* (2000년 1월), 186쪽.

증가했다는 사실<sup>29)</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지난 80년 동안 한국인 학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어떤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까? 이 분석은 마치 초기 성서 해석학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지역적 학파를 구성하였던 것처럼 한국 구약학에도 출신 대학별 학파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학위 받은 대학의 분포를 분석함에도 국내외 기준, 대륙별 기준, 나라별 기준, 언어별 기준, 교파별 기준, 대학의 종류(일반대학과 세미나리)별 기준, 등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선 한국 구약 교수들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비율은 29 대 100으로 해외 박사 학위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소위 토종 학자들이 30여명에 이르며, 그들이 각급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학의 국내 교육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소위 한국적 구약학 연구의 인프라가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 학위는 초창기는 주로 미국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과 유럽(영국-독일)의 양대 세력으로 나뉠 수 있다. 이것을 나라별로 분류하면, 미국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 20명, 독일 17명, 이스라엘 7명, 남아공. 호주, 화란이 각 2명, 프랑스, 스위스, 일본이 각 1명 등이다. 학위를 받은 나라별로만 보면 한국 구약학계의 박사학위 출신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을 4대 축으로 하면서 기타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어를 제외하고 다시 언어 단위로 구분하면 역시 미국과 영연방을 하나로 묶는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70명에 이르러, 국제 공용어(lingua franca)로서의 영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20여명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대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3중 언어 구사자들로서 한국 신학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본산인 이스라엘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한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한국 구약학의 원어 이해에

---

29) 임 태수, *윇글*, 255.

대한 지평이 확장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학위 이수의 언어별, 국가별 분포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기타
나라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남아공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명수	29	47	20	2	2	17	1	7	4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 학자들이 학위를 받은 대학은 매우 다양함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위 받은 47명은 23개의 대학<sup>30)</sup>에서, 독일은 15개, 영국은 10개 대학<sup>31)</sup>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 대학들은 비록 한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학풍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우선 일반 종합대학교의 신학과/종교학과/성서학과와 교단에서 설립한 신학대학원의 학풍은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수학한 셰필드 대학교는 어떤 신앙적-신학적 전제도 없이 순전히 성서를 학문적-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철학적 전제에서 ‘신학과(theology department)’ 혹은 ‘신학교’(Divinity school)라는 이름 대신 ‘성서학과’(Department of Biblical Studies)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은 교리적-신학적-철학적 전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은 그 역사적 뿌리에서부터 다르다. 같은 Union Theological Seminary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UTS in New York과 UTS in Virginia는

30) Andrew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Claremont Graduate School, Cornell University, Dallas Theological Seminary, Drew University, Dropsie College, Emory University, Geneva College, Graduate Theological Union, Harvard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Luther College,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Universi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rinity International Un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University of Chicago, 등.

31) University of Aberdeen,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of Durham,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Oxford, University of Sheffield, University of Wales 등.

그 출신들이 피차 전혀 다른 학교임을 힘주어 강조할 만큼 서로 다른 학문적 경향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구약 학자들의 박사학위 이수 대학 분포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세계화가 구축되었다. 둘째, 한국적 구약학 연구의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셋째, 다양한 학풍을 경험한 학자들 간의 대화로 학문적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이룰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런 분석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국 신학계는 뚜렷한 학파, 신학 운동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sup>32)</sup>이라고 한 임 태수의 신랄한 지적을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학문적 인정’과 ‘건전한 비판’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 그의 제안에 공감하게 된다.

#### 4. 주제 및 범위로 분류한 구약학 박사 학위 논문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박사 학위 논문은 한 학자가 수행하는 가장 학문적인 작업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구약 학자들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논문들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가? 장신대학교의 박 동현 교수는 구약학 연구가 다시 다음과 같이 12개의 하위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소개한다. 구약성서개관학, 구약언어학, 구약지리학, 구약역사고고학, 구약주변세계학(= 고대근동학), 구약개론학, 구약외경위경학, 구약해석학, 구약주석학, 구약신학, 구약설교학, 구약 윤리학<sup>33)</sup> 등. 한국인 학자들의 박사학위 논문도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여기서 수집된 전체 박사 학위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본인이 새롭게 설정한 기준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구약에 대한 연구(*Studies on the Old Testament*), (2) 구약과 함께 하는 연구(*Studies with the Old Testament*), (3) 구약을 위한 연구(*Studies for the Old Testament*), (4) 구약학에 대한 연구(*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물론 하나의 논문이 정확히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은

32) 임 태수, *읽글*, 259.

33) 박 동현, 「구약학 개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3-4쪽을 참조.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개연성 있는 영역으로 분류해 볼 것이다.

### 1) 구약에 대한 연구(Studies o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대한 연구’란 구약 자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를 의미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구약 본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 범주의 연구들도 때때로 고대 근동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약 본문을 자체를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예비 작업이거나 아니면 구약 본문에 나타난 특정 주제의 의미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그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1) 구약에 나타난 주제(motif) 연구

이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사상을 구약 전체 혹은 일부의 넓은 범위에서 추적한 것이다. 이 연구는 종종 고대 근동 자료도 함께 탐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과 고대 근동 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보면서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적 연구’의 성격이 크다.

그동안 탐색된 모티프들로는 ‘거룩함’,<sup>34)</sup> ‘조상들의 죄’,<sup>35)</sup> ‘신들의 전쟁’,<sup>36)</sup>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sup>37)</sup> ‘하나님의 보좌’,<sup>38)</sup> ‘창조와 구속’,<sup>39)</sup> ‘하나님의 땅 소유권’,<sup>40)</sup> ‘제사장 신점’,<sup>41)</sup> ‘성막’,<sup>42)</sup> ‘하늘 성소’,<sup>43)</sup> ‘하늘

34) 각주 10번 참조.

35) Lee, Kyung-Sook, *Der Begriff 'Suende der Vaeter' (Sins of Fathers), im Alten Testament*, (Georg-August Universität Göttingen, 1981).

36)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Hebrew University, 1983). 같은 제목의 단행본 BZAW 177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로 출판.

37) Seock-Tae Sohn, *The Divine Election of Israel*, (New York University, 1986).

38) Daegeuk Nam, *The 'Throne of God' Motif in the Hebrew Bible*, (Andrews University, 1989).

39) Se-Young Noh, *Creation and Redemption in Priestly Theology*, (Drew University, 1991).

40) Lee, Jongkeun, *Divine Ownership of the Land in the Hebrew Bible*, (Boston University, 1993).

41) Jongsoo Park, *Priestly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Its Characteristics and Roles*, (Drew University, 1993).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 (서울: 한울출판사, 1997)으로 출판.

42) Myung Soo Suh, *The Tabernacle in the Narrative History from the Exodus to the Conquest*, (University of Sheffield, 1998). *The Tabernacle in the Narrative History of Israel from the Exodus to the Conquest*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50; New York: Lang, 2003)로 출판. 다음은 이 책에 대한 서평들. M. M. Homan in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5 (2004-2005),

회의',<sup>44)</sup> 등이 있다.

(2) 구약 여러 책에서의 연구

이것은 구약의 책, 구절, 인물 등을 상호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주제를 제한된 다수의 텍스트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오경의 여러 구절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명법에 관한 연구,”<sup>45)</sup> “모세의 노래(신 32: 1-43)와 호세아-베가 갈등,”<sup>46)</sup> “미가와 예레미야,”<sup>47)</sup> 엘리야와 아모스를 중심으로 본 “북방 이스라엘의 통치체계와 선지자들의 사회비판,”<sup>48)</sup>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중심으로 한 “마르제아(Marzeah) 제도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sup>49)</sup> “출 18: 1-27, 신 16: 18 - 17: 20, 대하 19: 1-11을 공시적-통시적 독법으로 접근한 “고대 시스템에 나타난 사법제도,”<sup>50)</sup> “8세기 선지자(아모스와 이사야)의 기별에 끼친 지혜의 영향,”<sup>51)</sup> 민 35장, 수 21장,

---

by David G. Graves in *RBL* (08/2004), by James T. Sparks in *Colloquium* 38 (1/2006), by Thomas Hieke in *RBL* (06/2004), and by Henning Graf Reventlow in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29 (2004).

43) Kim, Sanglae, *The Heavenly Sanctuary/Temple in the Hebrew Bible*, (University of Sheffield, 2002).

44) Min Suc Kee, *Heavenly Council in the Near Eastern Texts and Its Employments as a Type scene in the Hebrew Bibl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3).

45) Eun-Ae Lee, *Forschungsgeschichte der Diskussion um das apodiktische Recht (Research History of Discussion Regarding the Apodictic Laws)*,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2003).

46) Chong, Joong Ho, *The Song of Moses (Deuteronomy 32:1-43) and the Hoshea-Pekah Conflict*, (Emory University, 1990).

47) Jun-Hee Cha, *Micah und Jeremia (Micah and Jeremiah)*,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1993). *Micah und Jeremia* (Bonner Biblische Beiträge Band 107), (Athennäum, 1996)로 출판.

48) Sang-Kook Lim, "北이스라엘王國의支配體制と預言者の社會批判: エリヤとアモスを中心に", (Rikkyo Daigaku, 1997).

49) Taek Joo Woo, *The Marzeah Institution and Rites for the Dead: A Comparative and Systemic Stud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Eighth-century Prophets* (Graduate Theological Union, 1998).

50) Seokgyu Jung, *The Judicial System in Ancient System: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of Exodus 18:1-27, Deuteronomy 16:18-17:20, and 2 Chronicles 19:1-11*,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1).

51) Young-Ho Lee, *Einflüsse der Weisheit auf Worte der Propheten des 8. Jahrhunderts: Amos und Jesaja*, (Rheinischen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2005).

대상 6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레위 성읍”,<sup>52)</sup>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에 나타난 “제사자료(P1)의 문학적 편집사적 연구”<sup>53)</sup> 등이 좋은 예이다.

### (3) 구약의 특정 책 연구

구약의 특별한 책 한 권, 혹은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으로 간주된 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시도되었다. 오경 연구로는 한 해에 동일한 대학의 같은 지도교수 아래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sup>54)</sup>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sup>55)</sup>이 있다. 역사서 연구로는 “사무엘서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역사 전달”<sup>56)</sup>, “유다 왕정 이데올로기에 나타난 남성의 특징”,<sup>57)</sup>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히스기야 개혁의 전승사적 연구”,<sup>58)</sup> “역대기의 다윗상”,<sup>59)</sup>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sup>60)</sup> 그리고 “에스라-느헤미야의 레위인 저작권”<sup>61)</sup>이 있다. 삼대 예언서 연구로는 먼저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본문과 한국어 번역의 상관관계를 다룬 “이사야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서설”,<sup>62)</sup>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신과 그 종말론적

52) 허 성균, “레위성읍에 대한 연구 : 민수기 35장, 수 21장,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53) 김 은규, “신명기 역사서에서 제사 자료(P1)의 문학적, 편집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1997).

54) 김 대철,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 (호서대학교, 2007).

55) 김 선영,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 (호서대학교, 2007).

56) Hee-Hak Lee, *Überlieferung und Geschichte der Ladeerzählung in den Samuelbüchern*,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1998).

57) Jong Yun Kim, *An Examination of Masculine Traits in Judahite Royal Ideology: An Ideological Criticism of Masculine Traits as Reflected in the Davidic Narrative and Modern Scholarly Representations of the Character David*, (University of Sheffield, 2002). 「고대 유다에서 읽는 다윗 내러티브」 (서울: 성광문화사, 2004)로 출판.

58) 박 신배,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히스기야 개혁의 전승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0).

59) Lim, Tae-Soo, *Das Davidbild in den Chronikbüchern*, (Dr. theol dissertation,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1984). 「신학사상」 49 (1985 여름), 239-279쪽에 요약 게재.

60) Bae, Hee-Sook, *Vereinte Suche nach JHWH: Die Hiskianische und Josianische Reform in der Chronik*,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unster, 2004).

61) Kyung-Jin Min, *The Levitical Authorship of Ezra-Nehemiah*, (University of Durham, 2002). (Edinburgh: T & T Clark, 2004)에서 출판. 서평, Bob Becking, Utrecht University, JSOTSup 409 (2005).

62) Tae Sun Park, *Prolegomena to a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of Isaiah*

의미,”<sup>63</sup>) “이사야의 회복 사상에 나타난 창조 모티프,”<sup>64</sup>) 이사야서 최종 형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의식-성전-종말론-사회정의와 연관하여 연구한 “이스라엘의 정의와 이방의 구원”<sup>65</sup>)이 있다. 예레미야서는 마소라 본문을 칠십인역(LXX)과 비교하여 무엇을 빼고 더하였는지를 분석한 연구<sup>66</sup>)와 그 책에 나타난 탄식의 주제를 “탄식하는 하나님-탄식하는 사람”<sup>67</sup>)이란 제목으로 살핀 연구,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거짓: 용어와 기능”<sup>68</sup>)이 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예언적 심판 기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승,”<sup>69</sup>) 에스겔 전체에서 ‘용서⇒회개’의 신학적-문학적 구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연구,<sup>70</sup>) 에스겔에 나타난 나시(*nasi*)라는 용어의 의미를 그 책의 회복 신탁에 나타난 다윗 같은 인물과의 관계

(Boston University, 1956).

63) Wonsuk Ma, *The Spirit(רוח)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and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Wonsuk Ma, “The Spirit(Ruah) of God in Isaiah 1-39,” *Asia Journal of Theology* 3, 1989, 582-596쪽 참조.

64) 임 창일, “이사야의 회복 사상에 나타난 창조 모티프,” (충신대학교, 1997).

65) Kyung-Chul Park, *Die Gerechtigkeit Israels und das Heil der Völker: Israel und die Voelker im bezug auf die Themen 'Kultus-Tempel-Eschatologie und soziale Gerechtigkeit' in der Endgestalt des Jesajabuches* (Jes 56,1-8; 58,1-14; 65,17-66,24), (Dr. Theol. dissertation, Kirchlichen Hochschule Bethel, 2001). (Beiträge zur Erforschung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ntiken Judentums Vol. 52, Frankfurt: Peter Lang, 2003)로 출판. 서평. Judith Gartner in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0/3, 2005), 260-262; Uwe Becker i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6/3, 2004), 470-471; J. Middlemas i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5, 2004), 98; Joachim Schuster in *Jahrbuch fuer Evangelische Theologie* 18 (2004), 231-232.

66) Min, YoungJin, *The Minuses and Pluses of the LXX Translation of Jeremiah as Compared with the Massoretic Text: Their Classification and Possible Origins* (Hebrew University, 1977).

67) Dong Hyun Bak, *Klagender Gott - Klagende Menschen. Das Klage-Phänomen im Jeremiabuch*, (Kirchliche Hochschule Berlin, 1989).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n Wissenschaft 19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에서 출판. 한국어 요약본이 「신앙과신학」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4-69쪽; 「예언과목회」 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1-39쪽에 소개.

68) 김 한성, “예레미야서의 거짓: 용어와 그 기능,” (연세대학교, 2007).

69) Jun-suh Park, *Theological Traditions of Israel in the Prophetic Judgment Speeches of Ezekiel*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78).

70) 이 종록,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용서⇒회개의 신학과 문학구조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에서 분석한 연구,<sup>71)</sup> 등이 있다.

분량이 적은 소신지서는 책별 연구로 선호된다. 호세아서에 대한 연구로는 “호세아의 시련”<sup>72)</sup>, 그 책에 나타난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sup>73)</sup> 그리고 “창조신앙”에 대한 언어적 연구<sup>74)</sup>가 있었다. 아모스서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도 있었고,<sup>75)</sup> 본문의 언어분석에 의한 “아모스서의 종말론”<sup>76)</sup> 그리고 “아모스서에 나타난 선택과 윤리”<sup>77)</sup>라는 연구도 있다. 본문과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에돔의 정치사를 재건한 오바다 연구,<sup>78)</sup> 나훔서에 나타난 “비유 언어의 기능”에 대한 탐색<sup>79)</sup>도 있었고, 문학적 분석에 기초한 “하박국서의 통일성”<sup>80)</sup>에 대한 연구, “열방에 반대하는 스바냐의 신탁”<sup>81)</sup>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스가랴서에 나타난 야훼의 날”을 다윗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 논문<sup>82)</sup>도 있었다. “예언자들의 결혼 은유”<sup>83)</sup>, “언약서와 선지자들의 사회 비판”<sup>84)</sup>,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의 야훼의 영”<sup>85)</sup> 등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예언서들을 연구한 경유이

71) Hwi Cho, *Ezekiel's Use of the Term NASI with Reference to the Davidic Figure in His Restoration Oracle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2).

72) Yunkuk Kim, *Trial of Hosea*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1956).

73) Yoon-Jong Yoo, *Israelian Hebrew in the Book of Hosea*, (Cornell University, 1999). 「구약논단」(2001)에 소개.

74) 김 정철, “호세아서의 창조신앙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2003).

75) Choi, In-Kee, *Rhetorical Analysis of the Book of Amos*, (University of Manchester, 1998).

76) Sang Hoon Park, *Eschatology in the Book of Amos: A Text-linguistic Analysi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1996).

77) Sung-Koo Lee, *Election and Ethics in the Prophecy of Amos* (Trinity College, 1990)

78) 문 희석, 「저주의 신학: 오바다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참조. 박사학위는 Emory University (1971).

79) Hyung-Won Lee, *The Function of Figurative Language in the Book of Nahum*,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8).

80) 임 동원, “文學的 解析方法을 통한 하박국서의 統一性 研究”, (침례신학대학교, 1995).

81) Ho Joon Ryou, *Zephaniah'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Free University, Amsterdam, 1994). 같은 제목으로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13 (Leiden: E. J. Brill, 1995) 출판.

82) 김 남일, “스가랴서의 야훼의 날과 다윗언약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3).

83) 강 성열, “예언자들의 결혼 은유에 관한 연구” (장로교신학대학교, 1998). 「성서로 보는 결혼 은유」 (서울: 성광문화사, 1998)로 출판.

84) Hong-Sik Chae, *Das Bundesbuch und die prophetische Sozialkritik*, (Philipps-Universität, 1998).

다.

시편의 경우는 ‘탄식시’ 혹은 ‘애가시’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본격적인 한국 시편 연구의 효시가 된 “의지시에 나타난 히브리 경건 연구”<sup>86)</sup>를 비롯하여, “애가시에 나타난 급격한 기분 전환”을 그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연구<sup>87)</sup>도 있고, 시편에 나타난 “억압의 주제”,<sup>88)</sup>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시인과 원수의 관계”,<sup>89)</sup> 탄식시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인자 개념”<sup>90)</sup>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

(4) 한 책 내에서의 특별한 장이나 구절에 대한 연구

이 연구들은 구약의 한 책 내에서 어느 특별한 장이나 구절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다. 먼저, 오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창세기 6-9장의 대홍수 사건을 ‘심판 신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sup>91)</sup> “창세기에 나타난 리브가 내러티브에 대한 수사학적 독법,”<sup>92)</sup> 출애굽기 32-33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에피소드’를 신학적-비평적 관점에서 읽은 연구,<sup>93)</sup> “레위기 11-15장에 대한 양식비평 연구”,<sup>94)</sup> 레위기 19장을 정경적 전개로

85) 이 사야, “포르기 이후 예언서의 Ruah YHWH,” (연세대학교, 2007).

86) Jung Joon Kim, *A Study of Hebrew P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Batah* (Edinburgh University, 1961).

87) Ee Kon Kim, *A Study of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 Psalms, with a Special Inquiry into the Impetus for its Express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84).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 Psalms: A Matrix for the Establishment of a Psalm Theology*,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5)로 출판. 서평, J. Gerald Janzen in *Theology Today* (October 1986), 464; Patrick D. Miller, Jr. in *Interpretation* (January 1987), 88-89.

88) Young-Ihl Chang, *The Theme of Oppression in the Psalms in relation to Its Occurrence in Prophecy and Ritual*, (Emory University, 1987).

89) 손 세훈, “시편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시인과 원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1998).

90) Sung-Hun Lee, *The Concept of God's Hese as an Explanatory Feature in the Shift to Praise in the Individual Lament Psalms*, (University of Manchester, 1999).

91) Chun Sik Park, *Theology of Judgment in Genesis 6-9*, (Andrews University, 2005).

92) Yeon Hee Yoo, *A rhetorical reading of the Rebekah narratives in the book of Gene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2001).

93) Jeon, Jung-Jin, *Reading the Golden Calf Episode in Theo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Bristol, 2000).

94) Tai-Il Wang, *Leviticus 11-15 : A Form-Critical Study*, (Claremont Graduate School,

보면서 그것을 주석한 연구,<sup>95)</sup> 역사-비평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신명기와 그 사회적 위치”<sup>96)</sup>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 28: 15-68을 고대 근동의 문맥 속에서 재조명한 “고대근동 저주에 비추어 본 성경의 언약 저주”<sup>97)</sup>가 있었다.

역사서에서는 “삼손 사이클의 구조,”<sup>98)</sup> “연극 대본으로서의 삼손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sup>99)</sup> 왕하 4: 1-7; 8-37; 8: 1-6을 중심으로 “엘리사 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연구,”<sup>100)</sup> “엘리야 이야기(왕상 16: 29 - 왕하 2: 18)”에 대한 문학 비평적 연구<sup>101)</sup>가 있었고, 왕하 17장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아훼의 땅”이란 제목으로 시도한 논문,<sup>102)</sup> 에살핫돈의 왕위 계승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비관용적인 단일승배의 기원에 관한 연구”<sup>103)</sup>도 있다.

지혜 문학서에서는 욥 3장을 그 책 전체의 맥락에서 ‘질의응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sup>104)</sup>와 욥 38-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문학 전승의 콘텍스트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sup>105)</sup> 시편에서는

1991).

95) 김 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96) Dong-Gu Han, *Das Deuteronomium und seine soziale Konstellation*,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1995).

97) Mi-Ja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University of Liverpool, 1998). 「신명기의 새 관점: 1-11장」 (서울: 킹덤북스, 2010) 참조.

98) Ji-Chan Kim, *The Structure of the Samson Cycle*, (Kampen, The Netherlands: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3). 이 책은 그의 학위 논문의 개정판이다. (University of Kampen, 1992).

99) Hyungjoo Jeong, *A Study of the Samson Narrative as A Performance Text : Bible Study and the Semiotics of Theatre* (Sheffield University, 1995).

100) 최 은영, “엘리사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연구: 열왕기하 4장 1-7절, 4장 8-37절, 8장 1-6절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4).

101) 이 승현, “엘리야 이야기 (왕상 16: 29 - 왕하 2: 18)에 대한 문학비평적(文學批評的)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102) Sok-Chung Chang, *YHWH's Land: A Composition Analysis of 2 Kings 17*, (Claremont Graduate School [University], 1995).

103) 윤 영준, “고대 이스라엘의 비관용적인 단일승배의 기원에 관한 연구: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2008).

104) Kyung-Taek Ha,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Ruhr-Universität, 2002).

105) Keun-Jo Ahn, *The Significance of the Divine Speeches in Job 38-41 in the Context of*

시 89편을 조건 없는 언약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연구,<sup>106)</sup> 소위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불리는 시 120-134편에 대한 연구<sup>107)</sup>가 있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의 연구로는 잠 10장 1절 - 22장 16절을 “갈등 조정자로서의 지혜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sup>108)</sup>와 “전도서에 나타난 속담의 수사학적 기능”<sup>109)</sup>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선지서로는 사 6장을 BC 587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나타난 위기관리 신학의 한 예로 분석한 연구,<sup>110)</sup> 소위 제1이사야(사 1-39장)에 나타난 “야훼의 계획”에 대한 연구,<sup>111)</sup> “제2이사야 창조 전승 연구,”<sup>112)</sup> 제2이사야를 신명기 역사와의 관계에서 분석한 연구,<sup>113)</sup> 사 40-48장의 구조를 3중 패턴의 구조로 분석한 연구,<sup>114)</sup> 사 40-55장에 나타난 급격한 전환을 “해체냐? 재건이나?”라는 질문으로 분석한 연구,<sup>115)</sup> 사 57장 14-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처량함, 그리고 회복이라는 테마들을 연결, 연구함으로써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살펴본 논문,<sup>116)</sup> 소위 고난당하

---

*Literary Tradition*, (Boston University, 2004).

106) Kim, Jungwoo, *Psalms 89: Its Biblical Theological Contribution to the Presence of Law within the Unconditional Covenant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9).

107) Kim, Seong-Soo, *Reading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in Context*, (Lutheran University, 연대미상)

108) 김 경수, “갈등의 조정자로서 지혜교사의 역할 : 잠언 10:1-22:16의 본문 분석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2005).

109) 채 은하 “전도서에 나타난 속담의 수사학적 기능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같은 제목으로 출판(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110) Pil-Hoe Kim, *Jesaja 6 als Beispiel einer Krisenbewältigungstheologie nach der Katastrophe von 587 v. Chr.*, (Philipps-Univ. Marburg, 2003).

111) Hoe-kwon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1).

112) 김 찬국, “제2 이사야 창조전승 연구,” (연세대학교, 1980).

113) 오 택현, “제2이사야와 신명기 역사,” (연세대학교, 1998).

114) Chul Woo Park, *The Triadic Pattern : A Study in the Structure of Isaiah 40-48*, (Aberdeen University, 1984).

115) Chang-Joo Kim,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Radical Changes in Isaiah 40-55*, (University of Chicago, 2001).

116) Byunghyun Song, *The Loftiness of God, The Humility of Man, and Restoration in Isaiah 57:14-21: A text Linguistic Analysis of Their Convergence*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1997).

는 종의 시라고 불리는 사 52장 13절 - 53장 12절에 나타난 제의적 암시들을 분석한 연구<sup>117)</sup> 등이 있었다. 예레미야서로는 렘 21-24장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야훼를 아는 새 마음,”<sup>118)</sup> 렘 46장 1절 - 49장 27절에 나타난 외국인의 속담에 대한 연구<sup>119)</sup>가 있었다. 에스겔서는 “겔 37장 1-14절에 나타난 루아흐에 대한 수사학적 신학적 해석”<sup>120)</sup>에 대한 연구와 겔 38-39장을 중심으로 “야훼인지공식”을 찾은 연구가 있다.<sup>121)</sup> 이외에 “구조비평을 통한 호세아 1-3장 연구”<sup>122)</sup>와 “호세아 12-14장의 본문과 구조에 대한 연구”<sup>123)</sup>도 있다.

(5) 단어 연구나 문법 연구

언어적 지평이 확대되면서 구약의 단어나 문법에 대한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먼저 šq, ynh, lhs와 그 유사어들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억압 용어들을 분석한 연구<sup>124)</sup>가 있고, 이어서 구약에서 시간적 용어인 히브리어 OLAM(Afterworld)이 공간적 차원에서 사용된 것의 의미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sup>125)</sup>가 있었다. 또한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어 성서 히브리어와 사해사본 히브리어에 나타난 “분사의 반복과 반복 없음”에 대한 연구<sup>126)</sup>와 고전 히브리어에 나타난 “동어 부정사의 기능”에 대한

---

117) KyeSang Ha, *Cultic Allusions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iah 52:13-53:12), (Andrews University, 2009).  
 118) Soon Jin Choi, *A New Heart to Know the Lord: Rhetorical Analysis of Jeremiah 21-24*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2006).  
 119) Sok-Dschong Bang, *Studien zu den Fremdvoelkerspruechen in Jer 46:1-49:27*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1981).  
 120) Hakjae Lee, *Rhetoric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RUAH in Ezekiel 37:1-14* (Stellenbosch University, 1999).  
 121) 박 효용, “야훼인지공식-에스겔 38-39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9). 같은 제목으로 (서울: 성지출판사, 1999) 출판.  
 122) 최 기수, “구조 비평을 통한 호세아 1-3장 연구,” (계명대학교, 2003).  
 123) Dong Soo Lee, *Studies in the text and structure of Hosea 12-14* (University of Edinburgh, 1990)  
 124) Young Ihl Kim, *The Vocabulary of Oppression in the Old Testament šq, ynh, lhs, and Congeners*, (Drew University, 1981),  
 125) Hwan Jin Lee, *The Biblical Hebrew OLAM(Afterworld) in Time and Space: The Spatial Use of a Temporal Term*, (New York University, 2002).

연구<sup>127)</sup>가 시도되었다.

## 2) 구약과 함께 하는 연구(Studies with the Old Testament)

이 연구는 히브리 성경 이외의 자료들과 함께 구약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 이 범주에서는 구약과 다른 자료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장 흔한 접근법이다. 논문 제목 자체에 ‘비교 연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 (1) 고대 근동학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범주의 좋은 예로는 “창세기 1-11장의 문학적 구조와 고대 근동 패턴에 대한 비교 분석”<sup>128)</sup>과 “악카드 수일라(Su-ila) 기도 장르와 성경의 찬양시 비교”<sup>129)</sup>이다.

### (2) 고고학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범주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연구들로는 “구약의 본문과 고고학적 증거로 살펴 본 팔레스타인에서의 제 2 철기시대 성문,”<sup>130)</sup>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로 본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과 체제,”<sup>131)</sup>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고고학적 연구”<sup>132)</sup> 등이 있다.

### (3) 성경 외의 유대 문헌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범주의 연구들은 사해사본, 외경, 위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헬라이어

---

126) Mi-Sup Park, *Repetition and Non-Repetition of Particles in Biblical Hebrew and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Hebrew University, 2003).

127) Yoo-Ki Kim, *The Function of the Tautological Infinitive in Classical Biblical Hebrew*, (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128) Tae-Hoon Lee, *Gattungsvergleich der akkadischen Su-ila-Gebete mit den biblischen Lobpsalmen*,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1995).

129) Won Shik Oh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Genesis 1-11 to Ancient Near Eastern Patterns*,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2).

130) Daegu James Jang, *The Iron Age II City Gates in Palestine: The Textu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6).

131) 박 해령,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로 본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과 체제,” (연세대학교, 2007).

132) 한 상인, “이스라엘 族長時代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1996).

역본들을 활용하며 구약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쿰란 제1 동굴 하박국서 페세르(1QpHab)의 본문 복원과 예언서 해석에 관한 한 연구,”<sup>133)</sup> “순찰자의 책과 다니엘서: 정경 토라 해석과 관련된 목시,”<sup>134)</sup> “읍기 70인역에 나타난 언어 시스템 연구,”<sup>135)</sup> “70인역 이사야에 나타난 이집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신학과 정체성”<sup>136)</sup> 등이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4) 신약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범주의 연구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떤 특별한 신학적 주제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시온 전승과 하나님의 왕국: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시온 전승 연구,”<sup>137)</sup> “구약과 유대교적 배경에서 바라본 마태복음의 완전개념,”<sup>138)</sup> 그리고 “신약 기자의 이사야 52: 13 - 53: 12 용례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sup>139)</sup> 등이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5) 한국의 특별한 상황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연구는 한국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나 상황을 구약에 비추어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성경의 십일조 규례의 관점에서 본 한국 장로교회의 십일조 관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sup>140)</sup>와 “이사야서의 배타주의와 보편주

133) 고 광언, “쿰란 제1 동굴 하박국서 페세르(1QpHab)의 본문 복원과 예언서 해석에 관한 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1).

134) Chong Hun Pae, *The Book of Watchers and the Book of Daniel: Apocalypses Engag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anonical Torah*, (Graduate Theological Union, 2002).

135) Sang-Hyuk Woo, *Etudes sur le système verbal dans la Septante de Job*, (Universite Strasbourg II, 2006).

136) Keunjoo Kim, *Theology and Identity of the Egyptian Jewish Diaspora in Septuagint of Isaiah*, (Oxford University, 2009).

137) Hyuk Seung Kwon, *The Zion Traditions and the Kingdom of God: A Study on the Zion Traditions as 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New Testament Hebrew University*, (Hebrew University, 1998).

138) Paul Duk-Joong Kim, *The Idea of Perfection in Matthew's Gospel against Its Jewish Background*, (Aberdeen University, 2003).

139) Samuel C. Kwak, *A Hermeneutical Analysis of the New Testament Writers' Use of Isaiah 52:13-53:12*, (Dallas Theological Seminary, 2003),

140) In Whan Kim,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Tithe Practice of the Korean Protestant*

의: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다원화된 세계를 위한 이사야의 함의”<sup>141)</sup> 등이 그런 예를 보여준다.

(6) 신학과 함께 하는 구약 연구

이 범주의 연구는 특정한 신학적 관점,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한국 여성의 관점에서 구약의 주제나 사상을 재해석하는 것과 같은 연구들이다. “사 62: 1-5과 66: 7-14에 특별히 주목하여 본 선지자 전승에 나타난 시온과 아시아 여성 신학을 위한 함의”<sup>142)</sup>와 “환경 조화: 창조에 대한 아시아 페미니스트 신학”<sup>143)</sup> 등이 좋은 예이다.

3) 구약을 위한 연구(Studies for the Old Testament)

이 범주에 속한 연구들의 주목적은 구약의 본문 자체에 대한 탐색이 아니라 성경 외 문헌이나 구약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자체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 문헌, 이집트학, 앗리아학 등에 관심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1) 사해사본, 외경, 위경에 대한 연구

“다니엘 첨가부분에 대한 본문 비평적-정경비평적 연구”<sup>144)</sup> “솔로몬의 지혜 11-19장에 나타난 출애굽 기사에 대한 거짓 솔로몬의 해석에 대한 탐색”<sup>145)</sup> “최근 연구에 비추어 본 사마리아인의 기원과 정체성에

---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blical Tithe Law*, (University of Wales, 2000).

141) Se-Hoon Jang, *Particularism and Universalism in the Book of Isaiah: Isaiah's Implications for a Pluralistic World from a Korean Perspective*, (University of Queensland, 2002). 같은 타이틀로 출판(Berlin, Peter Lang, 2005).

142) Yeong Mee Lee, *Zion in Prophetic Traditions with Special Attention to Isaiah 62:1-5 and 66:7-14 and the Implications for Asian Feminist Theologies*, (Union Theological Seminary, 2002).

143) Jean Hee Kim, *Ecoharmony: An Asian Feminist Theology of Creation*, (Drew University, 2001).

144) 천 민희, “다니엘 첨가부분에 대한 본문 비평적-정경비평적 연구” (한신대학교, 2006).

145) Samuel Cheon, *An Investigation of Pseudo-Solomon's Interpretation of the Exodus Story in the Wisdom of Solomon 11-19*, (Graduate Theological Union, 1994).

대한 새로운 검토”,<sup>146)</sup> 그리고 “로마의 정황에서 본 전쟁사본(IQM):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승과 변형”<sup>147)</sup> 등이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2) 고대 근동에 대한 연구

“수메르어 동사 접두사,”<sup>148)</sup> “다리우스 왕의 비히스툼 명각에 대한 비교 연구,”<sup>149)</sup> “기원전 첫 천년기의 고대 근동에 나타난 소통의 역할,”<sup>150)</sup> “기원전 7-8세기의 앓시리아, 시리아-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의 도시들 사이의 앓시리아 명각들과 정치적-경제적 관계”<sup>151)</sup> 등이 이 좋은 예이다.

4) 구약학 연구(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이 범주의 연구들은 구약학의 주제, 역사, 방법론, 해석학, 특정 구약신학자의 사상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형상금형의 현대사상적 연구: 칼 바르트와 엠마누엘 레비나스를 중심으로”<sup>152)</sup>와 “역사에서 내러티브 해석학으로”<sup>153)</sup> 등이 좋은 예이다.

5. 요약과 결론

146) Choon Shik Chang, *A New Examination of Samaritan Origins and Identity in the Light of Recent Scholarship*, (University of Sydney, 1990).

147) Yoonkyung Lee, *IQM (The War Scroll) in its Roman Context: Studies on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of War Ideology*, (Graduate Theological Union, 2004).

148) Cheol Soo Cho, *Sumerian Verbal Prefixes* (Hebrew University, 1983).

149) Chul-Hyun Bae, *Comparative Studies of King Darius's Behistun Inscription* (Harvard University, 1999).

150) Young-Jin Kim,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Near Eastern Empires of the First Millennium BC*, (Hebrew University, 1999).

151) Tae-Hun Kim, *Assyrian Historical Inscriptions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mong Assyria, the Syro-Palestinian States, and Egypt in the Eighth-seventh Centuries BCE*, (Graduate Theological Union in Berkeley, CA, 2002).

152) 민 대훈, “형상금형의 현대사상적 연구: 칼 바르트와 엠마누엘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2006).

153) Han Young Lee, *From History to Narrative Hermeneutics*, (New York: Peter Lang, 2004). 그의 논문 개정에 의한 책.

지금까지 수집된 129여 개의 박사 학위 논문을 (1) 구약에 대한 연구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2) 구약과 함께 하는 연구(Studies with the Old Testament), (3) 구약을 위한 연구(Studies for the Old Testament), (4) 구약학에 대한 연구(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등, 본인이 설정한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해 보았다. 이 논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탐색은 이 논문들의 방법론, 학문적 기여, 그리고 후속 연구들과의 상관성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지면관계상 다음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는 다만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구약학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위 이수 대학의 공간적 분포는 한국의 구약학 연구가 세계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 세부 전공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해졌고, 또 질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구약학계는 세계적 구약학 연구를 위해 학자들의 학문적 상호 교류가 더욱 절실해졌다.

둘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경향 분석은 한국 학자들이 주로 구약의 본문 자체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주제, 책, 그리고 구절들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구약의 책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인이 전혀 탐색하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민수기, 룻기, 에스더, 아가, 요엘 등등이다. 흥미롭게도 므길롯트(Megiloth)라 불리는 다섯 권의 두루마리에 대한 연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구 흥미 있는 사람 없는가?

셋째, 학위 이수의 시간적 분포는 한국인 구약학자들이 최근에 이르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 10년에는 100-200명 가까운 한국인 구약학 박사들이 배출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이런 미래의 학자들에게 아직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구약과 함께 하는 연구', '구약을 위한 연구', 그리고 '구약학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탐색도 시도하기를 더욱 격려할 필요가 있다.

## 6. 참고문헌

- Lee, Hyung Won,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7 (2008), 5-24쪽.
- 김 의원, "한국구약신학의 진단," 「개혁사상」 (1989 가을), 48-71쪽.
- 김 정우, "20세기 한국의 구약학 연구사와 역사비평학(1900~1999)," 「목회와 신학」 (1999년 12월), 208-219, (2000년 1월), 186-197쪽.
- 문 회석, "한국교회의 구약성서 해석사," 「신학사상」 제 20호 (1978년 봄), 141-192쪽.
- \_\_\_\_\_, 「한국 교회와 구약성서 해석사: 1900-197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민 영진, "1970년대 구약신학," 「신학사상」 제 36집 (1982 봄), 5-36쪽.
- 박 동현, 「구약학 개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구약학의 흐름과 미래," 김 동건(엮음), 「신학이란 무엇인가: 구약학에서 신학의 조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1-71쪽.
- 양 주삼, "구신약전서총론," 「신학세계」 I.1 (1916), 69-88쪽; I.2(1916), 61-75쪽; I.3(1916), 43-67쪽.
- 왕 대일,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12-26쪽.
- \_\_\_\_\_, "한국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한국문화연구원(편), 「신학연구 50년」 (서울: 도서출판 해안, 2003), 47-49쪽.
- \_\_\_\_\_, "한국구약학회의 역사," 한국기독교학회(편) 「한국기독교학회30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69-183쪽.
- 유 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6)-변홍규 편," 「기독교사상」 통권 제 121호 (1968, 6), 112-116쪽.
- \_\_\_\_\_, "한국 신학의 광맥(9)-김정준 편," 「기독교사상」 통권 제 124호 (1968, 9), 121-127쪽.
- 임 태수, 「종교다원시대의 이스라엘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254-255.
- \_\_\_\_\_,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22집(2001년 10월), 99-117쪽.
- 한 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 연구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50집 (2007), 5-48쪽.
- 황 성숙, "한국 구약학의 역사-구약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고찰한-, " 「신학연구」 제 18집(1977년 5월), 195-224쪽.

## 검색어

한국구약학  
학문적 동향  
박사학위논문  
구약에 대한 연구  
구약과 함께하는 연구  
구약을 위한 연구  
구약학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 An Analytical Study of Academic Trends in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OT Studies by Korean Scholars (1931–2010)

**Sang Lae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e academic analysis of their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Old Testament by Korean scholars has not yet been once attempted. This paper is to grasp the academic trends by analyzing these dissertations. For this, one hundred and twenty nine dissertations have been collected. The analysis has been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when’ (year), ‘where’ (school) and ‘what’ (topic).

Firstly, the following result is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when’ (year).

years	till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number	4	6	16	43	60

This shows that the number of Korean doctoral-degree holders in the OT Studies has been increased twice or three times in each decade.

Secondly, the analysis of 'where (schools)' shows the following result.

language	Korean	English				German		Hebrew	Etc
country	Korea	USA	UK	AU	S. Africa	Germany	Swiss	Israel	
number	29	47	20	2	2	17	1	7	4

This diagram shows that the academic glob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society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Scholars from 'foreign' are still in majority, but the production from 'domestic' is on the way of rapid growth. This promises that we are ready to do Koreanized Old Testament Studie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specially, scholars from 'Israel' makes to expect to deepen and broaden the linguistic horizon of the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Thirdly, 'what (topic)' of dissertations is analyzed by the following categories;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with* the Old Testament, Studies *for* the Old Testament, and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n scholars are mainly interested in the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That is, their academic concern is focused on exploring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itself. But the studies in other categories also became the focus of academic attention, although still in minority.

### **Key Words**

Korean Old Testament Studies

Academic Trends

Doctoral dissertation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with the Old Testament

Studies for the Old Testament

Studies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 투고일: 2010년 12월 15일
-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